

최근 인천경제

2026년 8월



I 지역경제

1. 기업경기
2. 투자
3. 수출입
4. 기업금융
5. 고용

II 시민경제

1. 소비
2. 물가
3. 가계금융
4. 소상공인
5. 부동산



최근 인천경제 요약

I. 지역경제

제조업 생산과 경기지수 반등에도, 수출 정체와 무역적자 확대, 민간 건설 위축, 고용 여건 악화 등으로 인천 경기의 개선은 일부 부문에 그친 모습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출하가 늘고 재고 부담도 줄었으나 동행·선행 순환변동치 격차는 3개월째 확대

(투 자) 전국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고 인천 건설수주도 공공 발주로 증가했으나 민간 건축은 위축 지속

(수 출 입) 인천은 반도체 부진으로 수출이 늘지 못한 가운데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 확대

(기업금융)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도 대기업 대출이 2개월 연속 줄며 기업 대출잔액은 6개월 만에 감소

(고 용) 상용직은 늘었으나 고용률이 내리고 자영업자 감소 폭도 커지며 고용 개선 흐름이 약해짐

II. 시민경제

물가 오름세 둔화와 상환 부담 완화에도, 소비심리 위축과 대형 유통 판매 감소, 소상공인 업황 악화 등으로 민생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소 비) 소비자수는 감소 폭을 줄였으나 소비심리가 꺾이고 대형소매점 부진도 이어지며 내수 회복 지연

(물 가) 석유류 오름폭 축소와 농축수산물 하락 전환에도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상승세를 유지

(가계금융) 대출잔액은 늘었지만 1인당 신규 약정액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함께 낮아지며 대출 규모는 축소

(소상공인) 전통시장 체감경기는 소폭 올랐으나 소상공인 체감은 하락을 거듭했고 8월 전망은 나란히 급락

(부 동 산) 매매가격이 전국보다 훨씬 덜 오르고 전세 수요 강세도 누그러지며 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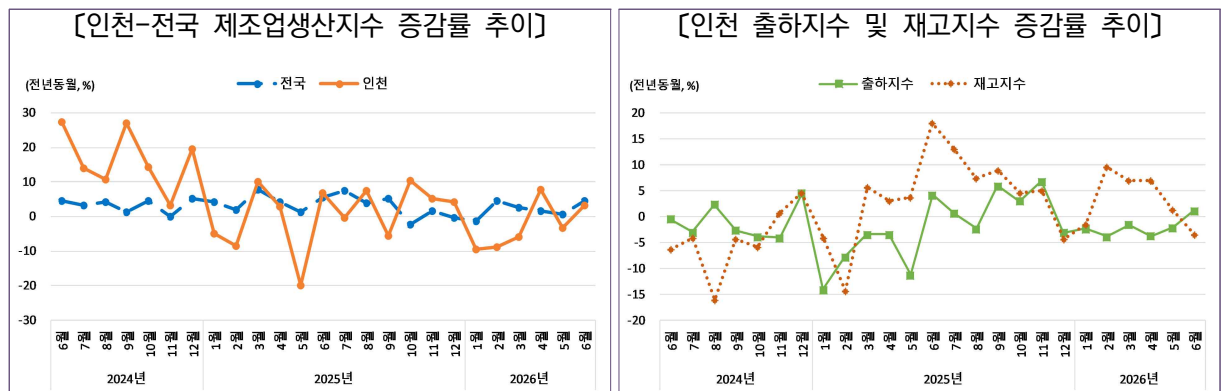
류동훈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제조업 생산·출하가 늘고 재고 부담도 줄었으나 동행·선행 순환변동치 격차는 3개월째 확대

- '26.6월 인천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15.9% 증가하여 157.4를 기록
 - 인천 광공업 생산지수에서 전년동월대비 늘어난 업종은 전자·통신(21.0%), 화학제품(14.9%), 의약품(13.7%) 등이며, 석유정제(△13.3%), 기계장비(△7.6%), 고무·플라스틱(△5.3%) 등 업종에서는 감소
 - 인천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23.0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전월대비 11.5%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24.3으로 전년동월대비 3.3% 감소하며 재고 부담이 완화
- (전국) '26.6월 자동차와 반도체가 광공업을, 금융·보험과 전문서비스가 서비스업을 각각 끌어올리며 전산업 생산 증가율이 4%대로 올라섰고, 승용차 등 내구재가 앞장선 소매판매도 오름폭 확대
 - 전국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통신·방송장비(57.0%), 기계장비(13.7%), 자동차(9.6%) 등이 증가, 컴퓨터(△28.3%), 석유정제(△12.6%), 화학제품(△6.6%) 등이 감소하여 광공업(5.8%) 증가 전환
 - 전국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줄어든 업종 없이 전문·과학·기술(13.7%), 금융·보험(9.2%), 도소매(4.1%) 등 전 부문이 늘며 서비스업(5.3%) 오름폭이 한 달 새 0.7%p 커짐

(p:잠정치, 소매판매액지수(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는 불변지수 기준)

전월비, % 전년동월비, %	전 국						
	전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소매판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26.5월 ^p → 6월 ^p	△0.4 → 2.3	△2.9 → 6.4	1.0 → 0.7	0.1 → 2.7	△3.4 → 12.6	2.5 → △1.7	0.8 → 0.2
	1.9 → 4.2	△1.1 → 5.8	4.6 → 5.3	1.5 → 4.2	△3.6 → 10.9	7.2 → 2.2	1.9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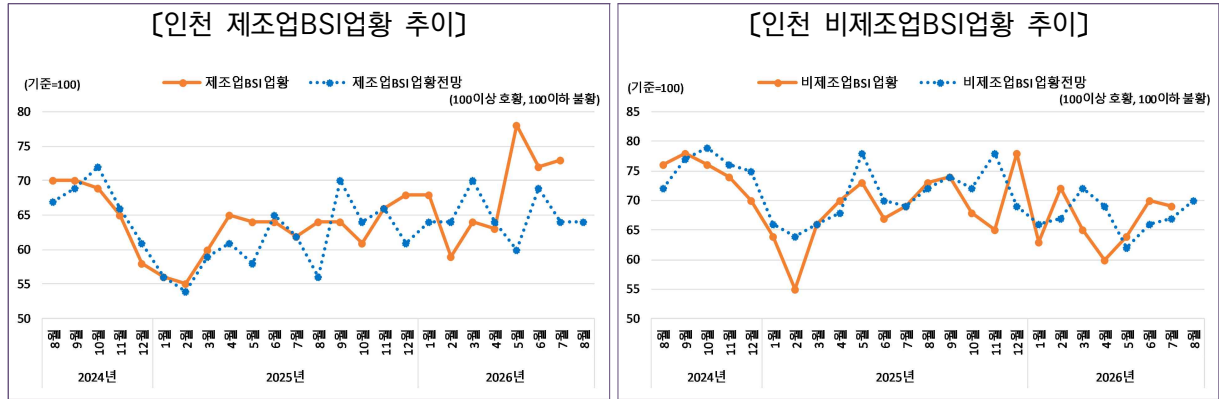
자료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인천광역시 제조업생산지수]

2020=100 (전년동월, %)	2024년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연간	연간	2월	3월	4월	5월 ^p	6월 ^p	
생산지수	146.1 (22.7)	145.9 (△0.1)	129.5 (△8.9)	154.2 (△5.9)	161.4 (7.7)	135.8 (△3.2)	157.4 (3.1)	15.9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119.2 (3.2)	116.3 (△2.4)	110.7 (△3.8)	113.7 (△1.6)	114.3 (△3.7)	110.3 (△2.0)	123 (1.2)	11.5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108.8 (4.5)	104.5 (△4.0)	122.2 (9.6)	115.3 (7.1)	120.7 (6.9)	118.1 (1.4)	124.3 (△3.3)	5.2

- 1) () 연간자료의 경우 전년대비 증감률, 월간자료의 경우 계절조정값을 활용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p는 잠정치
- 2) 전월대비는 최근 제조업생산지수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 3) 자료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반영으로 일부 시계열 변경)

- 인천 제조업 BSI 실적은 전월대비 1p, 전년동월대비 11p 증가하였고, 비제조업 BSI 실적은 전월대비 1p 감소·전년동월대비 보합에 머물렀으며, BSI 전망은 전월대비 제조업이 보합, 비제조업은 3p 증가
- 제조업 업황BSI 전망(S.A.): ('26년 5월) 60 → (6월) 69 → (7월) 64 → (8월) 64
 - 비제조업 업황BSI 전망(S.A.): ('26년 5월) 62 → (6월) 66 → (7월) 67 → (8월) 70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인천광역시 부문별 기업경기실사지수]

	2026년					2026년			
	4월	5월	6월	7월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 매출	85	93	90	91	제조업 내수판매	86	89	87	89
제조업 생산	89	91	91	93	제조업 수출	93	94	96	94
제조업 신규수주	76	90	81	81	제조업 원자재구입가격	155	157	151	144
제조업 채산성	61	62	62	67	제조업 자금사정	70	73	72	73
제조업 판매가격	99	107	102	96	비제조업 매출	69	71	78	73
제조업 제품재고	97	98	99	104	비제조업 채산성	66	74	77	78
제조업 설비투자	93	94	91	96	비제조업 인력사정	79	81	79	83
제조업 인력사정	93	93	91	97	비제조업 자금사정	66	78	81	79
제조업 가동률	85	95	96	94					

주 1) 본 BSI는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 등이 생산, 매출,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많고, 100보다 작을 때는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많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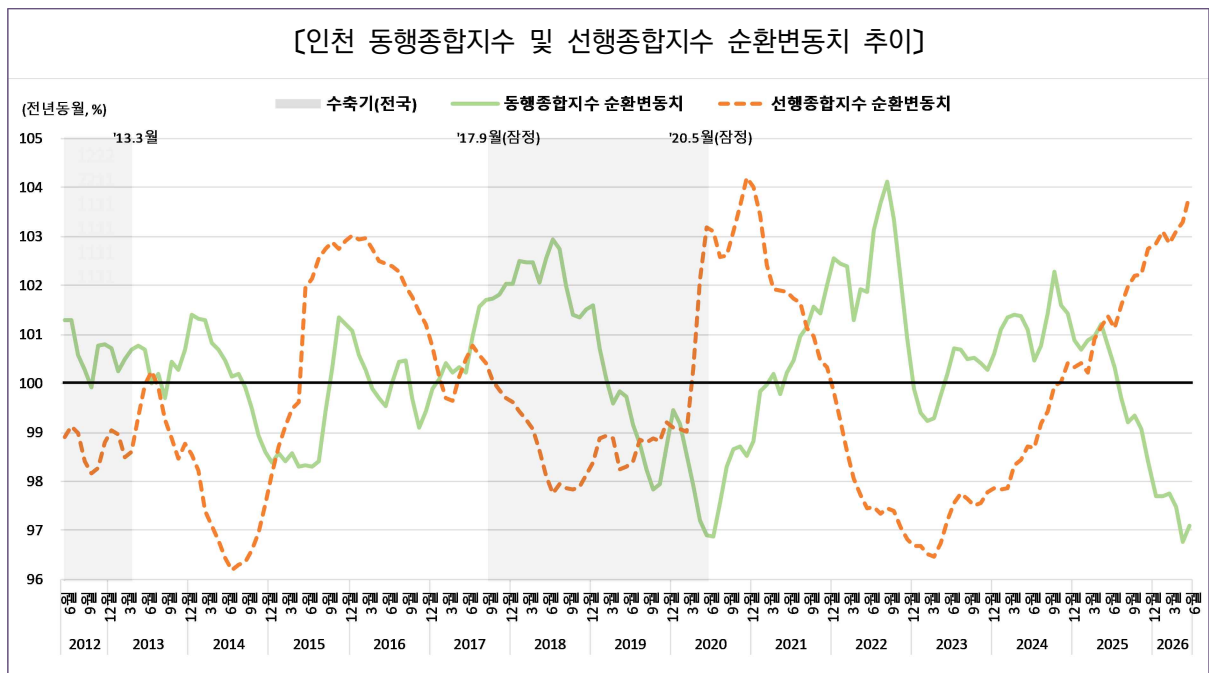
2)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인천광역시 제조업/비제조업 업황 실적 BSI]

기준=100 (전년동월, %)	2025년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 업황	64 (△8.6)	61 (△11.6)	66 (1.5)	68 (17.2)	68 (21.4)	59 (7.3)	64 (6.7)	63 (△3.1)	78 (21.9)	72 (12.5)	73 (17.7)
비제조업 업황	74 (△5.1)	68 (△10.5)	65 (△12.2)	78 (11.4)	63 (△1.6)	72 (30.9)	65 (△1.5)	60 (△14.3)	64 (△12.3)	70 (4.5)	69 (0.0)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4%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64% 낮은 수준이며,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5%(전년동월대비 2.44%) 상승
 - '26.6월 전월대비 동행종합지수 0.3p, 선행종합지수 0.6p 증가하여 각각 97.1, 103.9를 기록
 - 동행종합지수 구성 지표 중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수출액, 수입액 지표가 증가하였고, 컨테이너처리량,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지표는 감소
 - 선행종합지수 구성 지표는 감소한 지표 없이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건축허가면적, 수출입물가비율, 금융기관유동성, 장단기금리차가 모두 증가했으며,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전월과 동일
- 인천 동행종합지수는 컨테이너 물동량과 대형소매점 판매가 뒷걸음쳤음에도 산업생산이 큰 폭 반등하고 고용·수출입 지표가 함께 늘면서 두 달 연속 하락에서 벗어났고, 선행종합지수 역시 건축허가와 금융 지표가 나란히 개선되며 3개월 연속 오름세
 - 두 순환변동치가 함께 올랐으나 선행지수의 상승 폭이 더 커 격차는 6.8p로 3개월 연속 확대되었고, 선행지수가 기준선(100)을 웃도는 사이 동행지수는 97.1로 여전히 밑도는 상태('26.3월 5.1p→4월 5.6p→5월 6.5p)
 - * 2분기 이상 순환변동치가 증가하면 경기 확장기, 감소하면 경기 수축기로 판단(통계청 경기종합지수 해설 참고)



- 주 1)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계절조정지수를 적용하여 과거 선행·동행 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가 소폭 변경되었음
 2) 자료 : 인천경기종합지수 재구성, 인천연구원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반영으로 일부 시계열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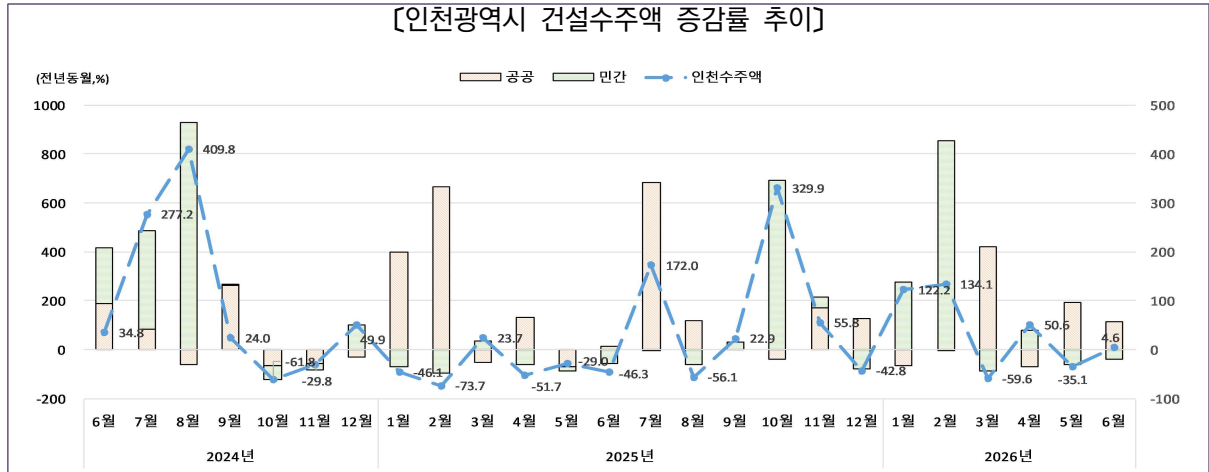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경기종합지수]

2020=100	2025년					202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p)	99.7 (△0.6)	99.2 (△0.5)	99.3 (0.1)	99.1 (△0.2)	98.4 (△0.7)	97.7 (△0.7)	97.7 (0.0)	97.8 (0.1)	97.5 (△0.3)	96.8 (△0.7)	97.1 (0.3)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p)	101.6 (0.5)	102 (0.4)	102.2 (0.2)	102.2 (0.0)	102.8 (0.6)	102.9 (0.1)	103.1 (0.2)	102.9 (△0.2)	103.1 (0.2)	103.3 (0.2)	103.9 (0.6)

- 주 1) 종합지수 산출시 사용하는 데이터의 변경과 추세 산출시 PAT법을 적용하는 관계로 종합지수가 변경될 수 있음
 2) 자료: 인천경제동향, 인천연구원

전국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고 인천 건설수주도 공공 발주로 증가했으나 민간 건축은 위축 지속

- '26.6월 전년동월대비 인천 발주자별 건설수주액은 공공 114.5% 증가, 민간 38.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6% 증가, 전월대비 공공은 213.1%, 민간은 76.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35.4% 증가
- 전년동월 기준 공공 부문은 도로·교량, 발전·송전, 상·하수도 등 수주가 늘었고, 민간 부문은 사무실, 재건축주택, 기계설치 등 수주가 줄었으며,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 39.9% 감소, 토목 부문이 273.5% 증가



자료 : 건축허가및통계, 국토교통부

- (전국) 설비투자는 반도체·자동차 관련 수요에 따라 크게 증가했으나, 건설기성은 감소세가 이어짐
- 전년동월 기준 반도체 제조용 기계(58.5%)와 특수산업용기계(30.4%)를 중심으로 일반기계류(24.6%), 정밀기기(24.1%) 투자가 늘며 기계류(22.2%)가 큰 폭 확대됐고, 자동차(29.8%) 강세로 운송장비(20.5%)도 증가 폭을 키웠으나, 건설투자는 건축(△2.1%)·토목(△9.0%)이 모두 줄어 건설기성(△4.0%) 감소세 지속

(p:잠정치)

전월비, %	전 국					
전년동월비, %	설비투자	기계류	운송장비	기계수주	건설기성	건설수주
'26.5월 ^p → 6월 ^p	0.3 → 5.8	0.7 → 6.9	△0.7 → 3.4	25.2 → 12.9	3.7 → 4.1	27.7 → △59.0
	9.7 → 21.7	13.1 → 22.2	3.2 → 20.5	24.0 → 52.1	△3.2 → △4.0	69.9 → △28.1

[인천지역 건설동향]

(단위 : 천㎡, 억원, %, p는 잠정치)

		2024년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연간	연간	2월	3월	4월	5월 ^p	
건축허가면적		7,342 (△25.0)	7,955 (8.3)	328 (35.6)	1,206 (207.2)	756 (△52.5)	431 (9.1)	37.0
건축착공면적		7,628 (44.5)	5,228 (△31.5)	129 (△59.7)	535 (84.9)	1,006 (34.2)	537 (12.5)	9.1
건설수주액		126,207 (47.6)	104,705 (△17.0)	7,071 (134.1)	4,839 (△59.6)	10,269 (50.6)	4,271 (△35.1)	135.4
발주	공공	15,103 (△11.9)	28,942 (91.6)	2,472 (△2.6)	3,509 (419.0)	392 (△70.0)	1,852 (193.0)	213.1
	민간	111,104 (84.4)	72,818 (△34.5)	4,599 (853.9)	1,330 (△88.2)	9,876 (79.2)	2,418 (△59.4)	76.0
공종	건축	93,292 (43.5)	83,760 (△10.2)	4,605 (520.1)	3,004 (△73.6)	9,602 (51.0)	3,945 (△37.8)	25.6
	토목	32,914 (60.5)	20,945 (△36.4)	2,466 (8.3)	1,835 (214.2)	667 (44.1)	326 (34.5)	1,4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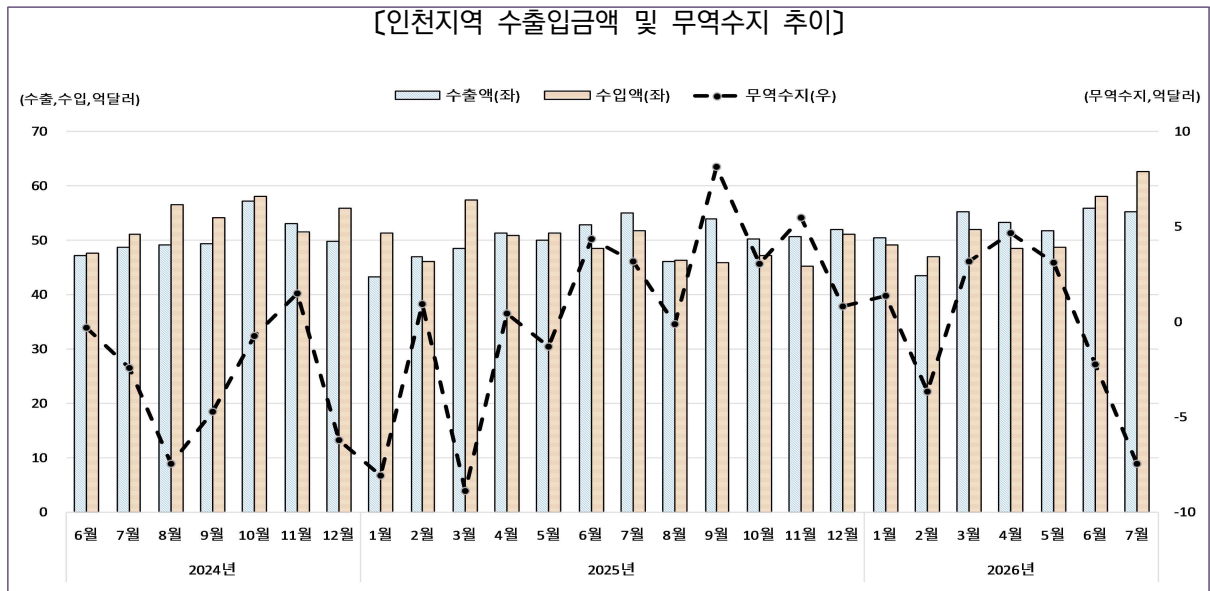
주 1)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면적의 () 연간 자료는 전년누계대비 증감률, 월간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건설수주액의 () 연간 자료는 전년대비 증감률, 월간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 자료: (1) 건설경기동향조사, 통계청 (2)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국토교통부

인천은 반도체 부진으로 수출이 늘지 못한 가운데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 확대

- '26.7월 전년동월 기준 인천 수출액은 0.3% 증가했으나, 수입액이 20.8% 늘어 무역수지 적자 확대
 - 인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Δ 17.3%)와 철강판(Δ 15.8%), 반도체제조용장비(Δ 31.7%)가 줄었으나, 의약품(55.4%), 비누치약및화장품(36.0%), 자동차부품(22.1%) 등이 늘며 전체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
 - 최대 수입 품목인 반도체(18.0%)를 비롯해 천연가스(49.6%)·의약품(69.8%)·철광(59.7%) 등 주요 수입 품목이 고르게 늘며 인천 전체 수입액이 두 달 연속 큰 폭 증가
 - 수출액(0.3%)보다 수입액(20.8%)이 크게 늘며 무역수지 적자(Δ 7.4억 달러)가 세 배 넘게 확대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전국) 반도체·컴퓨터 등 IT 품목 호조로 7월 수출이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경신
 - 전년동월대비 전국 수출액은 62.8% 증가한 988.9억 달러, 수입액은 26.5% 증가한 685.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303.2억 달러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238.1억 달러 확대
 -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 19개(반도체 178.8%, 컴퓨터 404.0% 등)와 9대 시장 중 8개 지역(중국·미국·아세안 등)에서 고르게 증가하였고, 반도체가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1~7월 누적 무역수지(1,680억 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1억 달러 확대

[인천지역 수출입현황]

역달러 (전년동월%)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전월대비(%) 전월차 (무역수지)
			3월	4월	5월	6월	7월	
수출액	595.24 (10.6)	601.52 (1.1)	55.25 (13.8)	53.22 (3.6)	51.84 (3.6)	55.91 (5.5)	55.26 (0.3)	Δ 1.2
수입액	637.68 (5.6)	593.46 (Δ 6.9)	52.09 (Δ 9.3)	48.55 (Δ 4.6)	48.70 (Δ 5.1)	58.16 (19.6)	62.68 (20.8)	7.8
무역수지	Δ 42.44	8.06	3.2	4.7	3.1	Δ 2.2	Δ 7.4	Δ 5.2

주 1) () 는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월간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자료: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26.7월 주요 수출품 중 반도체($\Delta 17.3\%$), 철강판($\Delta 15.8\%$) 등 상위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증가세가 사실상 멈춰 섰으며, '26년 누계 증감률은 전월보다 1.0%p 낮아진 4.9%를 기록
- 수출액(전년동월대비)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반도체($\Delta 17.3\%$), 자동차(5.7%), 의약품(55.4%), 비누치약및화장품(36.0%), 철강판($\Delta 15.8\%$) 순으로 나타남

[인천지역 수출품목별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5.7월		2026.7월		2026년 누계(1월~7월)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증감률
	총계	5,507	13.1	5,526	0.3	36,552	4.9
1	반도체	1,987	34.5	1,644	$\Delta 17.3$	10,425	0.2
2	자동차	653	65.8	690	5.7	4,694	5.3
3	의약품	390	$\Delta 12.4$	606	55.4	4,673	23.8
4	비누치약및화장품	175	16.6	238	36.0	1,406	32.4
5	철강판	246	1.2	207	$\Delta 15.8$	1,398	$\Delta 10.8$
6	무선통신기기	149	$\Delta 39.1$	159	6.6	1,044	$\Delta 7.1$
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5	$\Delta 80.5$	150	2872.1	218	$\Delta 8.8$
8	자동차부품	87	$\Delta 8.4$	107	22.1	619	$\Delta 3.7$
9	기구부품	91	$\Delta 1.7$	84	$\Delta 7.1$	512	0.6
10	반도체제조용장비	116	19.6	79	$\Delta 31.7$	587	$\Delta 14.2$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26.7월 전년동월대비 인천지역 국가별 수출액 비중 상위 5개국은 미국(46.7%), 중국($\Delta 7.9\%$), 베트남($\Delta 2.2\%$), 대만($\Delta 55.4\%$), 홍콩(92.8%) 순으로 나타남

[인천지역 국가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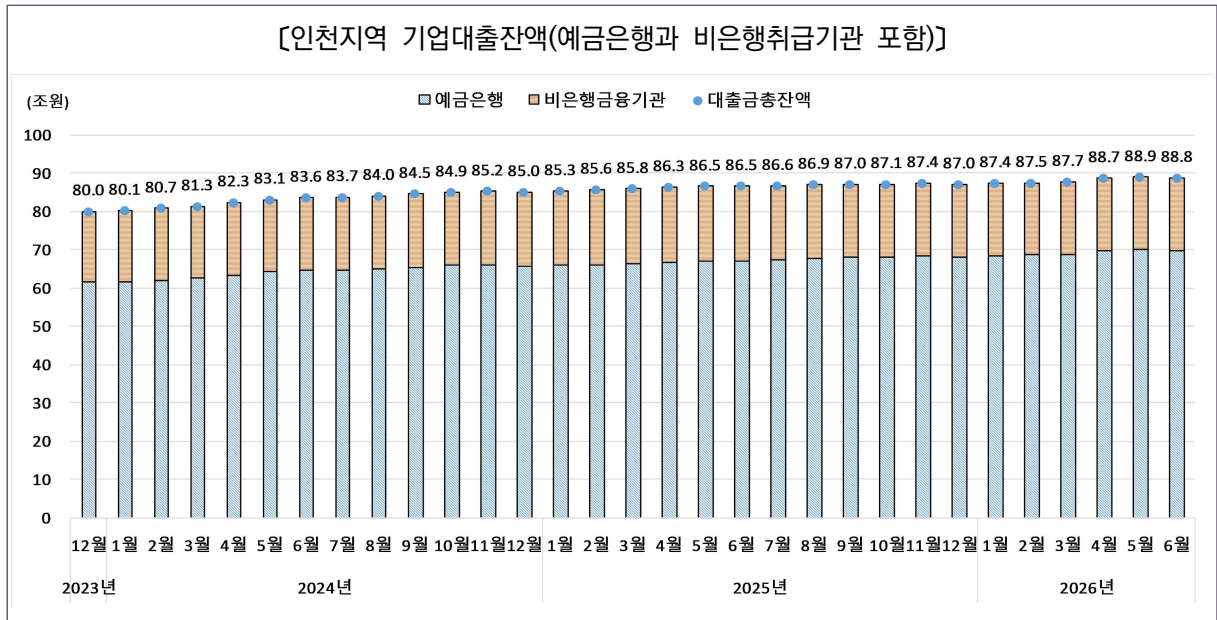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25.7월		2026.7월		2026년 누계(1월~7월)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증감률
	총계	5,507	13.1	5,526	0.3	36,552	4.9
1	미국	759	18.6	1,113	46.7	6,157	5.8
2	중국	1,051	$\Delta 29.2$	968	$\Delta 7.9$	7,083	$\Delta 1.0$
3	베트남	721	73.9	705	$\Delta 2.2$	5,183	20.2
4	대만	834	231.3	372	$\Delta 55.4$	1,684	$\Delta 34.4$
5	홍콩	142	18.9	274	92.8	1,907	94.3
6	싱가포르	156	16.2	201	28.7	1,401	16.9
7	인도(인디아)	151	18.5	155	2.6	1,000	$\Delta 0.1$
8	일본	148	$\Delta 4.5$	138	$\Delta 6.7$	887	8.1
9	헝가리	98	$\Delta 51.2$	114	15.9	748	18.6
10	네덜란드	87	127.6	112	28.2	728	49.9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도 대기업 대출이 2개월 연속 줄며 기업 대출잔액은 6개월 만에 감소

- '26.6월 인천시 기업 대출잔액은 88조 7,56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9% 증가, 전월대비 0.15% 감소
 - 전월 기준 기업대출잔액은 예금은행(△0.11%)과 비은행(△0.29%)이 모두 줄었고,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786억 원 늘었음에도 대기업이 2,081억 원 빠지며 전체 잔액을 1,295억 원 끌어내림
 - 대기업 대출잔액은 전년동월대비 9.97% 증가, 전월대비 2.50% 감소하여 8조 1,287억 원을 기록
 -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80조 6,281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0%, 전월대비 0.10% 증가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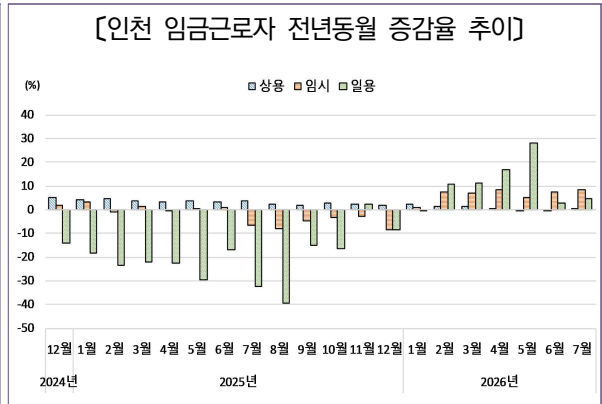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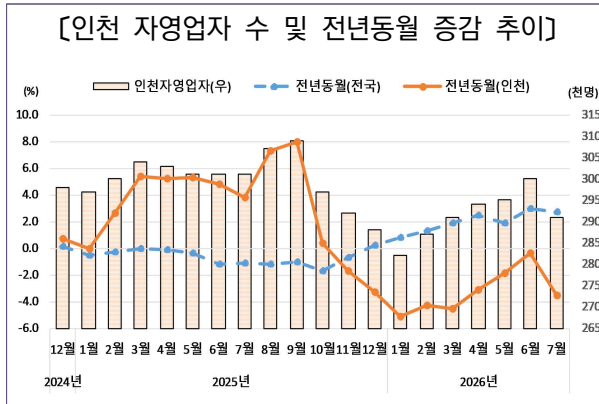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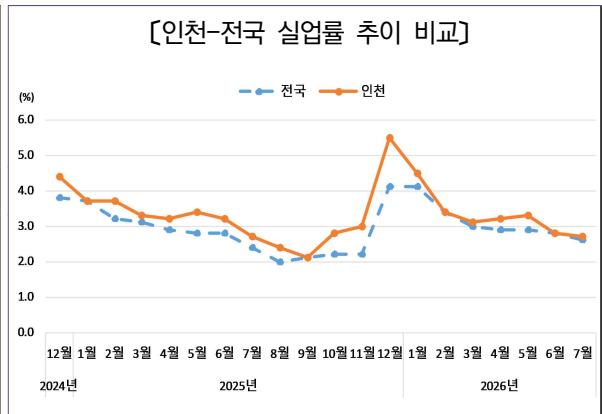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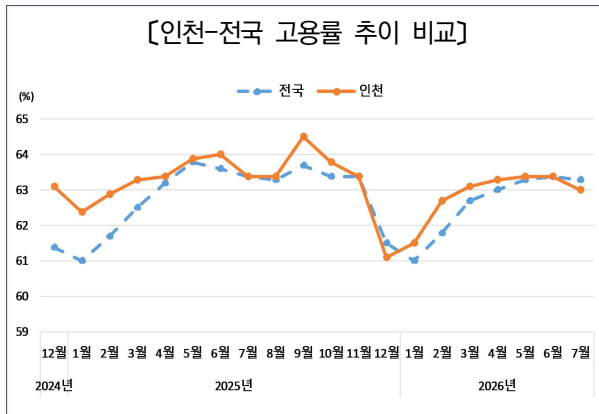
- '26.6월 인천시의 어음부도율은 전월대비 0.06%p 하락,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02%p 상승
 - '26.6월 어음부도액은 비제조업(26.8억 원 → 6.4억 원)에서 줄었으나 제조업(7.0억 원 → 28.2억 원)에서 늘어 34.7억 원을 기록했고, 어음교환액(1조 2,985억 원 → 1조 7,032억 원) 확대로 부도율은 하락
- [인천지역 기업대출잔액 지표]

사업원 (전년동월, %)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전월대비(%) 전월차(%p)
				2월	3월	4월	5월	6월	
예금은행	전체	65,595 (6.6)	68,014 (3.7)	68,622 (4.0)	68,743 (3.7)	69,634 (4.3)	69,875 (4.3)	69,801 (4.1)	△0.1
	중소기업	59,536 (5.8)	61,394 (3.1)	61,673 (3.1)	61,912 (2.9)	62,166 (2.9)	62,468 (3.3)	62,620 (3.5)	0.2
비은행 취급기관	전체	19,391 (4.9)	18,986 (△2.1)	18,851 (△4.2)	18,959 (△3.0)	19,057 (△2.6)	19,012 (△2.5)	18,956 (△2.6)	△0.3
	중소기업	18,659 (5.6)	18,110 (△2.9)	17,997 (△4.3)	18,115 (△3.2)	18,110 (△3.1)	18,082 (△3.0)	18,008 (△3.4)	△0.4
어음 부도율	인천	0.25	0.19	0.04	0.66	7.82	0.26	0.2	△0.06
기업대출 연체율	인천	0.27	0.29	0.32	0.29	0.3	0.32	0.34	0.02

- 주 1)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비은행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기타
 3)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상용직은 늘었으나 고용률이 내리고 자영업자 감소 폭도 커지며 고용 개선 흐름이 약해짐

- '26.7월 인천시 고용률은 63.0%(전국 63.3%)로 전년동월대비 0.4%p, 전월대비 0.4%p 감소, 실업률은 2.7%(전국 2.6%)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전월대비 0.1%p 감소
 - 남성 고용률은 전월대비 1.3%p 감소한 71.2%를 기록, 여성 고용률은 55.0%로 전월대비 0.5%p 증가
- 인천시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 감소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 기준 상용직(0.5%)이 증가로 돌아선 가운데 임시직(8.4%)·일용직(4.7%)도 늘었고, 자영업자는 290.9천 명으로 전월대비 3.0% 줄며 '26.1월 이후 이어지던 증가 흐름이 멈춤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인천지역 고용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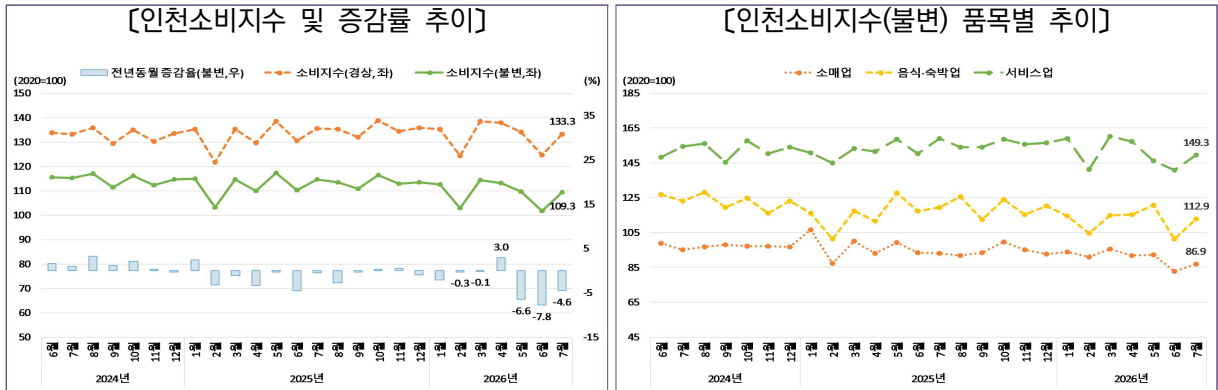
% (전년동월차,%p)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전월차 (%p)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고용률	63.5 (0.4)	63.3 (△0.2)	62.7 (△0.2)	63.1 (△0.2)	63.3 (△0.1)	63.4 (△0.5)	63.4 (△0.6)	63 (△0.4)	△0.4
남자	72 (△0.3)	72.3 (0.3)	72 (0.9)	72 (0.0)	72.2 (0.1)	71.9 (△1.1)	72.5 (△0.4)	71.2 (△1.2)	△1.3
	55.2 (1.1)	54.4 (△0.8)	53.5 (△1.3)	54.3 (△0.5)	54.6 (△0.2)	55.1 (0.2)	54.5 (△0.9)	55 (0.5)	0.5
실업률	3.3 (0.1)	3.2 (△0.1)	3.4 (△0.3)	3.1 (△0.2)	3.2 (0.0)	3.3 (△0.1)	2.8 (△0.4)	2.7 (0.0)	△0.1

주 1) 증감은 소수점 한자리 수에서 반올림,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소비지수는 감소 폭을 줄였으나 소비심리가 꺾이고 대형소매점 부진도 이어지며 내수 회복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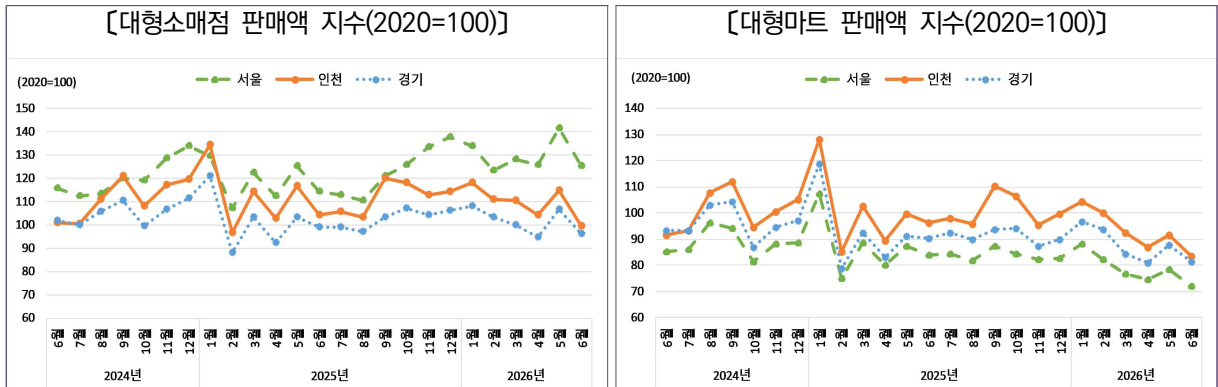
- '26.7월 인천소비지수(불변)는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했으나 전월대비 7.5% 증가하여 109.3을 기록
 - 품목별 지수는 전년동월 기준 소매업(△6.4%), 서비스업(△6.2%), 음식·숙박업(△5.5%)이 모두 감소했으나, 전월대비로는 음식·숙박업(11.7%), 서비스업(5.9%), 소매업(5.2%) 전 부문이 반등



주) 2026.7.1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과거 전 기간을 새 행정구역 기준으로 재집계

자료 : 신용/체크카드 결제 정보, 신한카드

- '26.6월 인천 대형소매점·대형마트는 전년동월과 전월 기준 모두 줄며 전월의 반등분을 되돌림
 - '26.6월 인천 대형소매점은 전년동월대비 4.5%, 전월대비 13.2% 감소했고, 대형마트도 전년동월대비 13.4%, 전월대비 8.8% 감소하며 오프라인 대형 유통 채널의 부진이 이어짐
 - 전년동월 기준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서울(9.8%)만 증가하고 인천(△4.5%)·경기(△2.8%)는 감소하였으며,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서울(△14.1%), 인천(△13.4%), 경기(△10.2%) 순으로 감소



자료 : 서비스업동향조사, 통계청 (* 매월 발표되는 지수는 잠정치(p)로 2개월 후에 확정)

- '26.7월 인천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2.0p 하락하여 106.0을 기록
 - 인천 소비자심리지수 구성지수 기여도는 가계수입전망(0.2p)만 상승 요인이었고, 생활형편전망(△1.1p), 현재경기판단(△0.4p), 소비지출전망(△0.3p), 현재생활형편·향후경기전망(각 △0.2p)이 지수를 끌어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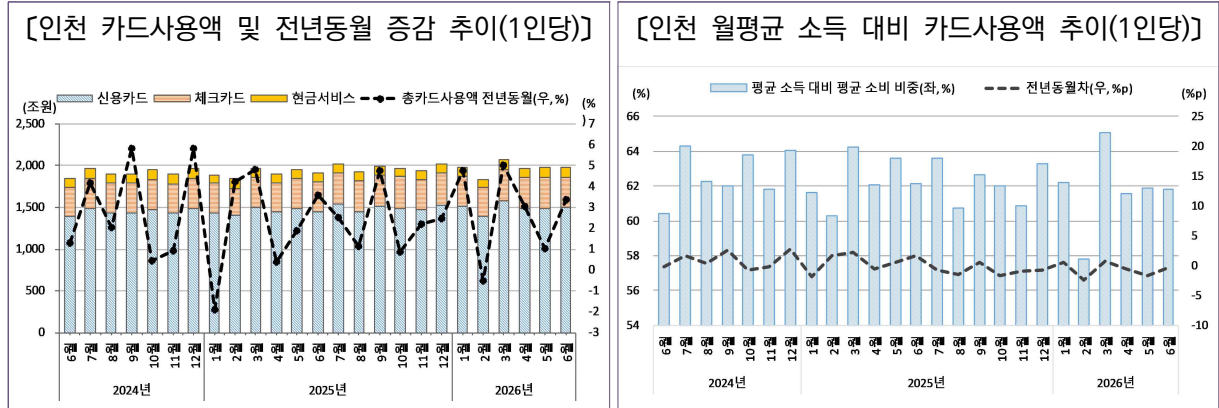
(전년동월, p)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인천 소비자 심리지수	111.7 (17.5)	109.9 (25.6)	109.0 (22.3)	111.5 (21.3)	107.9 (18.7)	97.6 (9.2)	105.0 (7.5)	108.0 (5.0)	106.0 (△0.4)	△2.0

주 1) 소비자심리지수 100은 표준화구간(2003~2021년) 중 장기평균을 의미

2)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작으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나음(나쁨)을 의미

3) 자료: 소비자동향조사(소비자심리지수), 한국은행

- '26.6월 전년동월 기준 1인당 카드 총소비액은 3.4% 증가,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8% 증가하여 1인당 월평균 소득 대비 카드사용액 비중의 차는 전년동월대비 0.3%p 축소
- 세부적으로는 전년동월 기준 신용카드(3.3%), 체크카드(0.9%), 현금서비스(12.2%)가 일제히 증가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p.13 참조)

- 전년동월 기준 4개 업종에서 성장세를 보였고, 4개 업종이 주의, 4개 업종이 위기를 기록
- 주의 업종으로 식음료점(△6.35%), 교육(△6.46%), 슈퍼(△6.77%), 숙박(△7.46%)이 있으며, 위기 업종은 가전가구(△12.88%), 기타소매(△13.48%), 대형종합소매(△19.61%), 문화관광(△29.41%)으로 구성

[인천지역 업종별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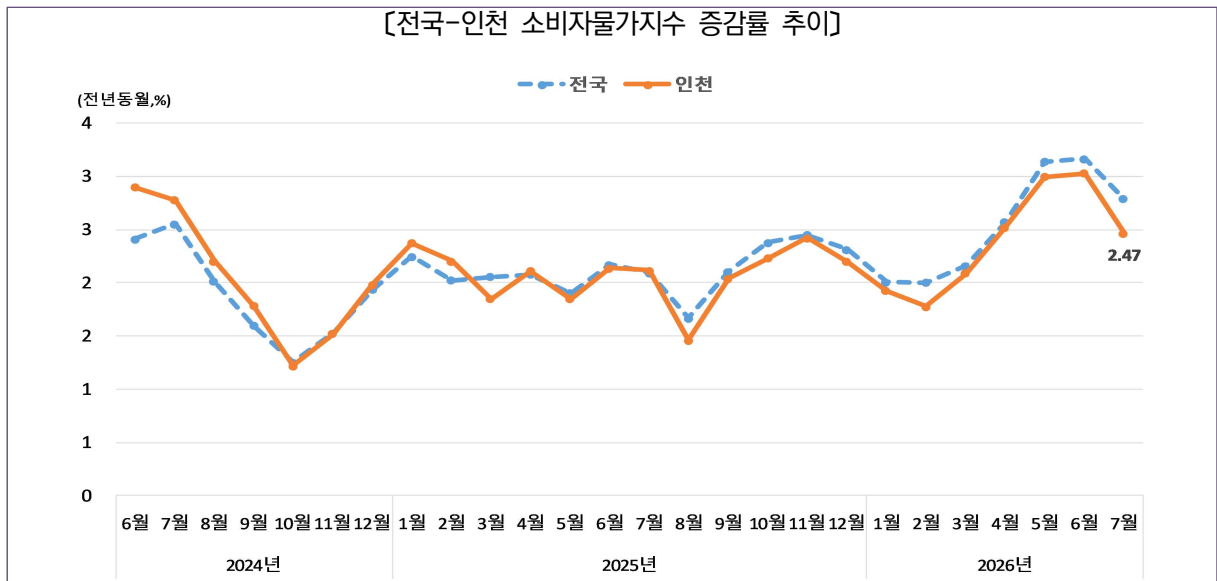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순위	업종*	'25.5월 ~ '25.7월		'26.5월 ~ '26.7월		'26년 누계(1월~7월)	
		합계	전년동월비	합계	전년동월비	합계	전년대비
	총계	64,207	0.48	61,979	△3.47	147,126	0.02
1	자동차방문판매등	250	7.57	359	43.51	811	35.66
2	SSM	429	△16.04	548	27.73	1,315	30.16
3	자동차기계장비	9,237	△4.35	10,031	8.59	22,636	6.76
4	인테리어	685	0.47	722	5.4	1,611	8.16
5	보건의료	9,973	7.83	10,345	3.73	24,591	7.98
6	교통운송	356	△33.73	364	2.35	870	△8.14
7	의류잡화	1,491	8.1	1,513	1.49	3,390	7.12
8	농수축협	113	5.47	115	1.46	246	1.96
9	주점	338	△1.52	338	△0.02	771	△1.18
10	식품류판매	3,567	6.3	3,459	△3.02	8,498	1.63
11	스포츠시설	1,281	△4.54	1,238	△3.35	2,619	△0.47
12	생활서비스·금융·정보통신	1,558	2.98	1,504	△3.47	3,565	△0.07
13	PC방·노래방	391	△4.68	376	△3.81	880	△2.95
14	편의점	3,220	△0.27	3,095	△3.87	6,996	△0.61
15	여가오락	758	△10.13	721	△4.88	1,662	△0.88
16	식음료점	13,592	△0.05	12,729	△6.35	29,772	△0.77
17	교육	2,802	8.79	2,621	△6.46	6,543	1.28
18	슈퍼	3,608	△1.95	3,364	△6.77	7,800	△6.35
19	숙박	520	△3.52	481	△7.46	1,095	△6.2
20	가전가구	912	△14.39	795	△12.88	1,726	△20.88
21	기타소매	2,009	3.05	1,739	△13.48	5,469	△7.29
22	대형종합소매	5,095	△7.7	4,096	△19.61	10,270	△15.17
23	문화관광	2,021	27.89	1,427	△29.41	3,989	△12.4

* 업종별 세부 분류는 부록 참고. : 성장(5%~). : 과열(△5%~5%) : 주의(△10%~△5%). : 위기(△10%). 자료 : 카드결제정보, 신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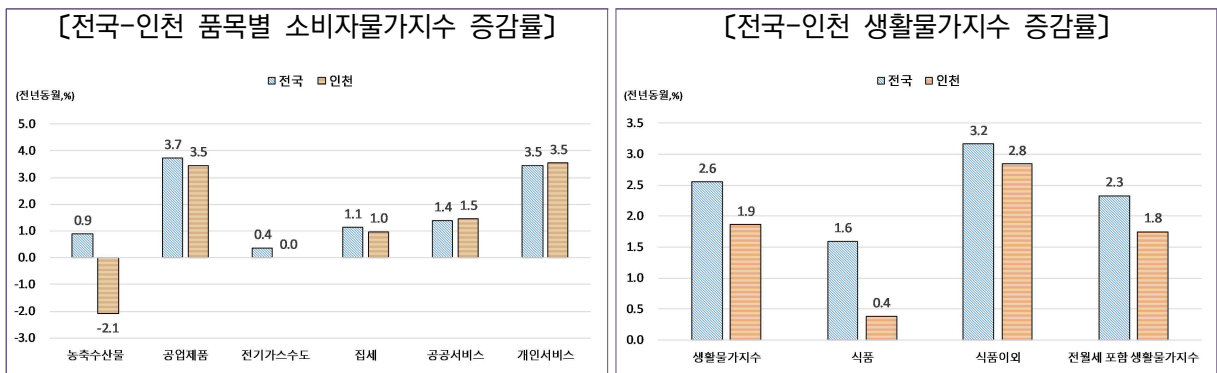
석유류 오름폭 축소와 농축수산물 하락 전환에도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상승세를 유지

- 서비스 물가가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석유류 상승 폭이 크게 줄고 농축수산물이 하락 전환하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나, 인천과 전국 모두 2%대 중반의 오름세는 유지
 - '26.7월 전년동월대비 인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47%로 전월 증가율 대비 0.56%p 축소되었으며,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도 전월대비 0.37%p 하락하여 2.79%를 기록
 - 전년동월대비 농산물(△5.14%)의 하락 폭이 커지고 축산물(2.38%) 상승 폭도 줄며 농축수산물(△2.07%)이 하락 전환하였고, 석유류(14.87%) 오름세가 크게 꺾이면서 공업제품(3.45%) 상승 폭도 축소됨에 따라 상품 물가는 전월대비 1.21%p 하락한 2.15%를 기록
 - 서비스 품목에서는 집세(0.97%)와 개인서비스(3.54%)가 소폭 올랐으나 공공서비스(1.45%)의 상승 폭이 둔화되며, 전체 서비스 물가는 전월대비 0.04%p 하락한 2.72%를 기록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 '26.7월 인천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86% 상승, 전월대비 1.05% 하락하여 122.11을 기록
 - 품목별 생활물가는 전년동월 기준 식품 0.4%, 식품 이외 2.8%, 전월세 포함 1.8% 증가
 - 인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국보다 0.69%p 낮았으며, 세부적으로 식품(△1.21%p), 식품 이외(△0.32%p), 전월세 포함(△0.58%p) 등 모든 지수가 전국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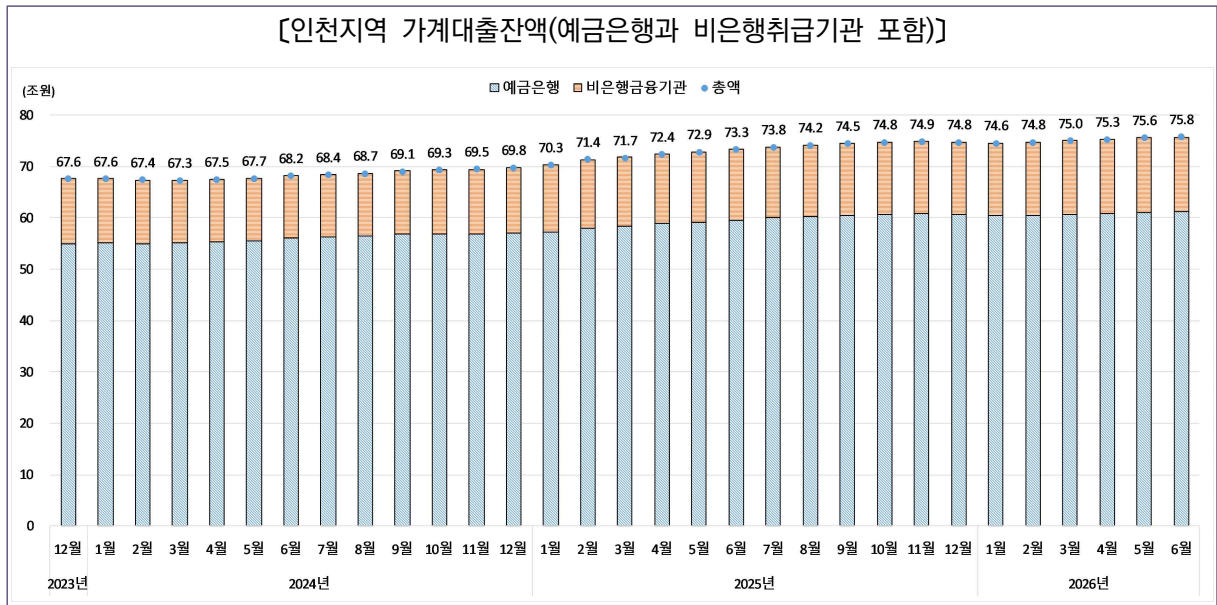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대출잔액은 늘었지만 1인당 신규 약정액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함께 낮아지며 대출 규모는 축소

○ '26.6월 총대출잔액은 75조 7,56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 전월대비 0.2% 증가

- 전년동월 기준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2.7%)·기타대출(2.5%)이 모두 늘었고, 비은행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14.5%)이 늘어난 반면 기타대출(4.1%)은 감소
- 전월 기준으로는 예금은행이 1,630억 원 늘어난 반면 비은행은 10억 원 줄어, 이번 달 잔액 증가는 사실상 예금은행에서 나온 결과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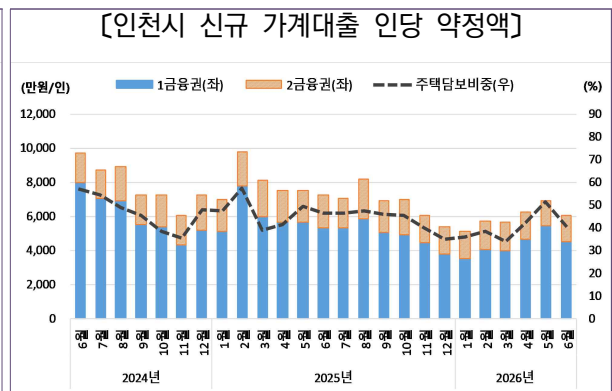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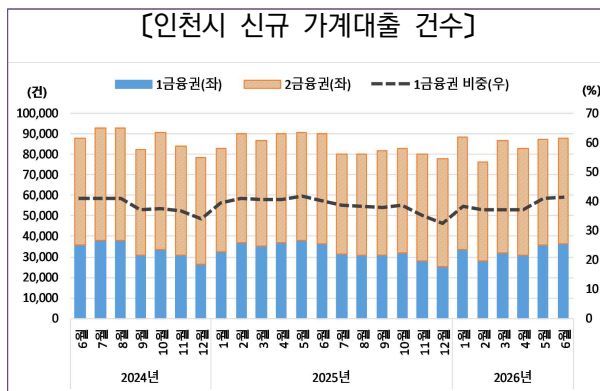
[인천지역 가계대출잔액 지표]

십억원 (전년동월비, %)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전월대비(%) 전월차(%p)
			2월	3월	4월	5월	6월	
예금은행	56,965 (3.6)	60,581 (6.3)	60,476 (4.2)	60,571 (4.0)	60,786 (3.3)	61,054 (3.1)	61,217 (2.6)	0.3
주택담보 대출	48,942 (5.4)	52,639 (7.6)	52,604 (4.8)	52,705 (4.5)	52,894 (3.7)	53,067 (3.3)	53,163 (2.7)	0.2
	8,023 (△6.2)	7,942 (△1.0)	7,872 (0.2)	7,866 (0.8)	7,892 (0.5)	7,987 (1.9)	8,054 (2.5)	0.8
비은행 취급기관	12,835 (1.7)	14,203 (10.7)	14,301 (7.4)	14,410 (6.9)	14,518 (7.0)	14,540 (6.5)	14,539 (6.1)	△0.0
주택담보 대출	6,416 (21.6)	8,116 (26.5)	8,260 (18.3)	8,392 (16.4)	8,533 (16.3)	8,583 (15.4)	8,632 (14.5)	0.6
	6,420 (△12.5)	6,087 (△5.2)	6,041 (△4.5)	6,018 (△4.0)	5,986 (△4.1)	5,957 (△4.1)	5,907 (△4.1)	△0.8
연체율 (%)	국내은행 가계대출 0.23	0.22	0.3	0.27	0.27	0.29	0.29	0.0

주 1) 비은행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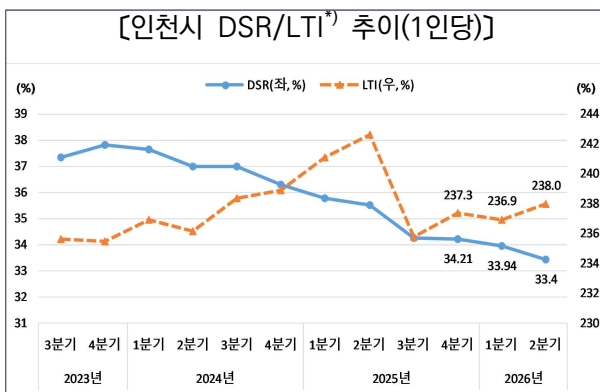
2) 자료: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 '26.6월 가계대출 신규 건수는 1·2금융권이 모두 전월대비 늘었으나, 1인당 신규 약정액은 1금융권을 중심으로 크게 줄었고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전월대비 하락
 - '26.6월 가계대출 신규 건수는 1금융권 3만 6,333건, 2금융권 5만 1,583건이며, 전월대비 1금융권 1.8% 증가·2금융권 0.2% 증가, 전년동월대비 1금융권 0.6% 증가·2금융권 4.2% 감소
 - '26.6월 1인당 신규대출 약정액은 6,034만 원이며, 1금융권 약정액은 2금융권의 약 3.05배 수준으로, 1금융권 4,545만 원, 2금융권 1,489만 원으로 구성
 - 1인당 약정액은 전년동월 기준 1금융권 15.0%, 2금융권 21.0%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6.6% 감소하였고, 전월 기준 1금융권 16.5% 감소·2금융권 1.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2.8% 감소
 - 신규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40.9%로 전월대비 10.6%p, 전년동월대비 5.4%p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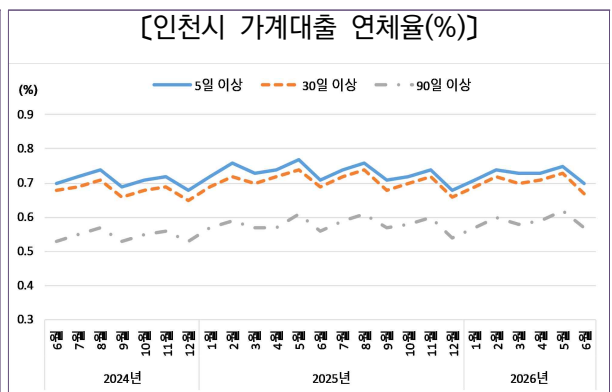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¹⁾

- '26.6월 인천시 차주의 DSR은 하락세를 이어갔고 LTI는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연체율은 전월·전년동월대비 모두 낮아지며 1.94%를 기록
 - '26.6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5.2분기 대비 2.08%p, '26.1분기 대비 0.51%p 하락한 33.43%를 기록하며 하락 흐름을 이어감
 - '26.6월 인천시 연체율은 1.94%로 전년동월대비 0.01%p, 전월대비 0.15%p 감소
 - 채권의 부실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체 기간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5일 이상 0.70%, 30일 이상 0.67%, 90일 이상 0.57%로, 전월에 비해 각각 0.05~0.06%p 하락



^{*}) KCB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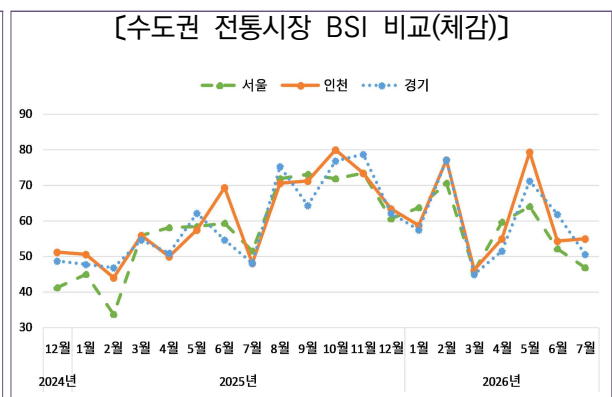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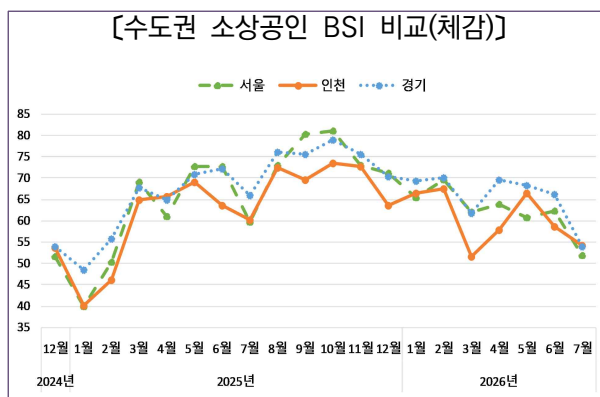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

1)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시도별 가계신용 집계자료 구매계약을 통해 동 자료를 동향 작성 및 연구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KCB 자료는 통계청·한국은행의 가계대출 통계와 조사방식, 포괄범위 등이 달라 통계값에 차이가 존재

전통시장 체감경기는 소폭 올랐으나 소상공인 체감은 하락을 거듭했고 8월 전망은 나란히 급락

- '26.7월 인천 소상공인 체감 BSI는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를 지적한 응답이 늘며 2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8월 전망 BSI도 비수기 진입을 우려하는 응답이 확산되며 낙폭을 키움
 - '26.7월 인천의 소상공인 체감 BSI는 전월대비 7.7% 감소(전년동월 △9.8%)하여 54.2를 기록하였고, '26.8월 전망 BSI는 67.5로 전월보다 12.2% 감소(전년동월 △7.7%)
- 인천 전통시장은 '26.7월 체감 BSI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했으나, 8월 전망 BSI는 계절적 비수기 전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며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큰 폭 하락
 - '26.7월 인천의 전통시장 체감 BSI는 55.1로 전월대비 1.3% 증가(전년동월 14.8%), '26.8월 전망 BSI는 66.9로 전월대비 10.8% 감소(전년동월 △6.2%)



자료 :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전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BSI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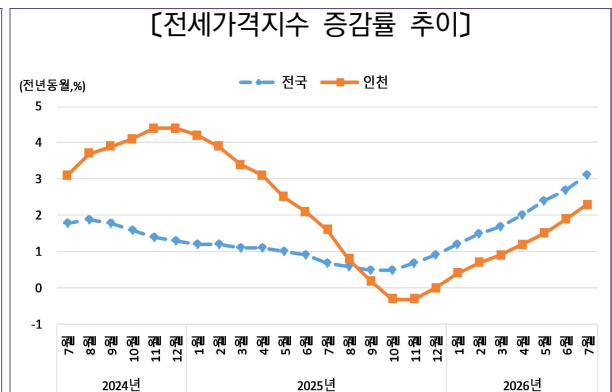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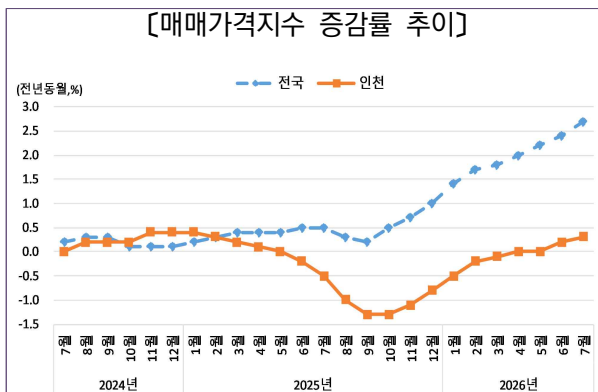
	소상공인					전통시장			
	2026년					2026년			
	4월	5월	6월	7월		4월	5월	6월	7월
BSI	63.7	67.9	63.6	55.6	BSI	55.5	70.7	59.8	50.5
제조업	69.2	70.9	61.9	51.5	농산물	54.8	66.9	55.1	51.3
소매업	67.8	76.5	67.0	60.6	축산물	50.0	85.6	68.9	66.1
음식점	62.9	68.0	65.4	54.7	수산물	43.8	62.1	54.0	42.2
부동산	61.4	58.0	68.9	49.3	가공식품	57.8	68.9	56.8	43.9
전문 과학기술	58.6	67.2	62.5	47.7	의류, 신발	62.1	84.7	66.1	48.6
교육 서비스	70.3	78.9	95.3	76.6	가정용품	48.7	68.4	64.1	43.2
스포츠 및 오락	48.0	59.4	53.3	58.5	음식점	58.4	67.6	55.1	56.2
수리업	60.1	64.0	59.3	52.8	기타 소매업	61.2	67.9	62.9	54.7
개인 서비스	69.2	65.3	57.4	53.6					

- 주 1) BSI(Business Survey index): 현재 경기수준에 대하여 소상공인 9개 업종, 전통시장 8개 업종의 체감지수, 전화조사
 2) BSI 조사업체: 2,400개 소상공인 및 1,300개 전통시장
 3) BSI 100이상은 경기 호전, 100미만은 경기 악화
 4) 자료: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매매가격이 전국보다 훨씬 덜 오르고 전세 수요 강세도 누그러지며 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

○ 인천 주택시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전세가격이 올랐으나 상승 폭은 전국에 크게 못 미쳤고, 연립은 매매·전세 모두 하락하며 유형 간 온도 차가 지속

- '26.7월 인천 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29%, 전월대비 0.02% 상승(전국 2.7%, 0.35%), 전세가격지수는 2.29%, 0.27% 상승(전국 3.1%, 0.38%)
- 유형별 전년동월대비 매매가격은 단독(1.14%), 아파트(0.90%) 상승, 연립(△1.06%)은 하락하였고, 전세가격 역시 아파트(3.66%)와 단독(0.68%)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연립(△0.67%)은 하락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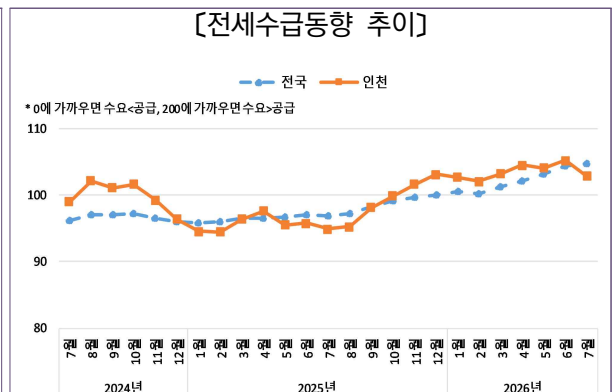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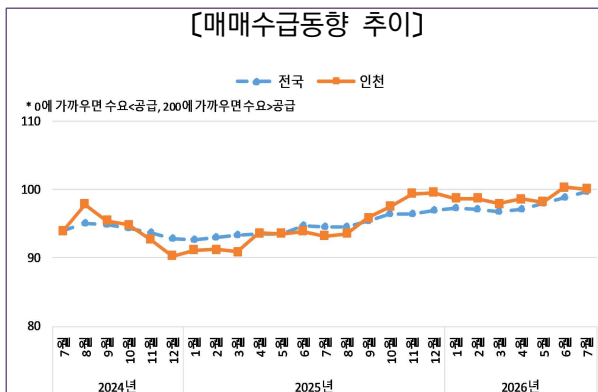


주 1) 지수 기준시점 변경(월간 2026.06=100)으로 증감률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 인천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100)을 겨우 넘어선 수준에 그쳤고 전세수급은 전 유형에서 낮아졌으며, '26.6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늘었음에도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흐름

- 전월대비 매매수급은 연립·다세대(3.67%)가 오른 반면 아파트(△0.86%)는 내리고 단독주택(0.00%)은 보합, 전세수급은 연립·다세대(△3.41%)·단독주택(△2.18%)·아파트(△2.08%) 모두 하락
- '26.6월 주택거래량은 4,067호로 전월대비 9.1% 증가했으나 전년동월대비 12.8% 감소하였고, 최근 3개년 6월 평균치(4,115호)를 1.2% 하회하는 수준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인천 주택거래량(매매)〕

동(호) 수 (전년동월, %)	2024년 평균	2025년 12월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주택거래량(인천)	3,579 (11.8)	3,808 (39.6)	3,668 (66.3)	3,480 (12.4)	4,417 (4.4)	4,507 (9.0)	3,729 (△8.5)	4,067 (△12.8)

주 1) 주택거래량은 인천지역 주택유형(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 구분없이 매매인 거래를 합산한 값

2) 자료: 부동산거래현황, 한국부동산원

최근 인천경제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6년 8월 27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